

2024년 3월 19일 배포 즉시

15개 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 배제' 당한 포스코 "장인화호, 탈탄소 기조 확립해야 판 뒤집을 수 있을 것"

기후솔루션, 19일 한국 온실가스 최대배출 기업 포스코의 해외 투자기관 투자 배제 현황 조사 발표
자산운용사 로베코(Robeco) 비롯 15개 유럽 투자운용사 '기후 대응 미흡' 등 이유로 배제 연이어
새 경영진에 "탄소중립 선언은 시작에 불과, 실제 목표 달성 위한 계획과 실행 뒤따라야" 권고

2022~23년 사이 최소 15곳의 유럽 소재 기관투자자들이 포스코홀딩스와 그 자회사를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우려 등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왜 해외 투자자들이 외면하는가? 포스코 홀딩스의 기후 리스크 및 재무 영향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 2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확정되는 장인화 대표이사 회장 후보의 새 경영진에게 탈탄소 정책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단일 기업으로는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자, 새 회장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기후 정책 미비 등을 이유로 투자 배제하고 있는 해외 투자기관의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배제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영문 링크](#)), 책임 투자 자산 운용기관 순위 사이트([영문 링크](#)), 그리고 주요 투자기관들의 홈페이지 직접 조사 등으로 포스코 투자 배제 현황을 수집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자산운용사인 로베코(Robeco, 로테르담투자컨소시엄)를 비롯한 최소 15개 해외 금융기관이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 계열사 가운데 하나 이상을 '투자 배제'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기관 투자자의 포스코 계열사 투자 배제 리스트

년도	기관투자자명	투자 배제 근거
2024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기후 기준 '배제+' Level 2 포스코홀딩스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 추가 '배제+' Level 2 포스코, 포스코 DX,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스틸리온
2023	SEB Investment Management	글로벌 규범 위반 및 위반 미조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2023	Nordea Asset Management	기존 규범 위반

		포스코홀딩스
2023	Achmea Investment Management	유엔글로벌콤팩트 6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 ADR
2023	Zorgverzekeraar Menzis	화석 연료 (상세 항목 미제공)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2023	CB Fonder	심각한 환경 파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2023	Pensioenfonds Horeca & Catering	화석 연료 (기후) 포스코퓨처엠
2023	DNB Asset Management	환경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2023	Pensioenfonds van de Metalektro	화석 연료 - 석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2023	Lærernes Pension	규범 위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2022	Danske Bank ⁷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활동: 화석 연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강화된 지속 가능성 기준: 부실한 노동 기준, 환경 파괴적 관행, 인권 문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UNGC 위반 + UNGC/OECD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프로세스 부족: 주요 부정적 영향 포스코인터내셔널 온실가스 배출 Scope 1: 주요 부정적 영향 포스코스틸리온
2022	a.s.r. Asset Management	유엔글로벌콤팩트 위반 포스코홀딩스
2022	Algebris	발전용 석탄 (기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석유·가스 (기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2022	Storebrand Asset Management ⁸	화석 연료 (2023년 3분기 추가 기준) 포스코, 포스코캠텍, 포스코홀딩스 산림 파괴 포스코홀딩스 행동 기반 배제: 인권 및 국제법 포스코홀딩스
2022	NN Group	국제 비즈니스 행동 표준 위반 포스코인터내셔널
2022	Equinor Asset Management	심각한 환경 파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2022	Industriens Pension	채탄 활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2015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⁹	심각한 환경 파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2015	ATP¹⁰	생물다양성 포스코홀딩스

출처: 각 사 홈페이지

투자 배제(exclusion)란 각 금융기관이 책임투자 차원에서 각자 정한 기후, 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를 일부 또는 전체 펀드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 투자 분야에서 주주 관여와 위임 투표가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바뀌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방식이라면, 투자 회수(divestment)나 투자 배제는 주주의 적극적 관여에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가치가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로베코(Robeco)는 포스코홀딩스를 '기후 기준 미달'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자회사는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투자 배제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런 경향과 무관치 않게 포스코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별첨 보고서의 그림1). 지난 3월 15일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28%로, 2023년 1월의 52%에서 급격히 감소한 수치다. 2006~2022년에는 53~69%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한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이라 더 주목된다.

기후 리스크가 재무 영향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다가오는 21일 정기주주총회 이후 출범이 유력시되는 '장인화 새 CEO' 체제에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 업계에서는 기후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하위개념이 아닌 금융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며 이에 따라 포스코가 기후 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리스크(홍수 피해 등)뿐만 아니라 "시장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의 3중 위협을 지게 된다고 보았다. 시장 리스크로는 각국의 공시 의무 강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 등이 손꼽힌다. 평판 리스크로는 포스코가 지금까지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데서 눈에 띄는 성과가 없고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뒤에 로드맵 공개는 늦어지면서 본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은 투자 배제나 투자 회수가 일어나는 상황 등을 뜻한다.

이에 보고서는 새 경영진이 이런 상황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기후 위기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장유티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사업의 연관성이 더 커지고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이사회"라며 "지속가능성 보고서나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 대응의 시작일 뿐이므로, 경영진은 선언이 실제 목표 달성에 이르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응이야말로 투자 배제 등의 평판 리스크에 대응하는 정도임을 강조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은 탄소중립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목표와 관련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